

옷입기 양식을 통해 본 속옷문화의 변화

金美英 · 朴富珍* · 韓明淑**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교수**,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A Study on the Change of Underclothes Culture by Patterns of Wearing

Mi-Young Kim, Boo-Jin Park*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Majoring in Anthropology, Dept. of Liberal Arts,

Myongji University*

目次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전통사회의 속옷문화

IV. 현대사회의 속옷문화

V. 속옷문화의 변화

VI. 결론 : 속옷의 문화적 의미 변화

참고문헌

Abstract

What human beings wear is closely related to how they conceptualize their bodies and how they classify the group they belong to and the way they wear their cloth is an important cultural element that shows wearers' awareness and social relationship. Especially, underclothes reflect unrevealed cultural inside of the society more abundantly than outer wear do. Through such characteristics of underclothes, we are able to better understand inherent order of cultur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Korean culture by reviewing the convention of underclothes wearing that takes important role in clothing without being explicitly revealed.

For this study, in addition to biblical review of under clothes of traditional societies, a total of 301 college students aging from 19 to 28, who are the most open to accepting new cultures and changes, residing in Seoul area were participant. Questionnaire consists of open-ended questions of underclothes terms, kinds, why they wear, items of wearing, how they obtained, how they take care of, etc.

In conclusion, changes in cultural meaning of underclothes analyzed through convention of underclothes wearing are as follows: 1) changes in wearing pattern implies changes in functions of underclothes and changes in members' roles and values in a society; 2) changes in recog-

inition of underclothes are related to the changes in awareness of sex; 3) consumer behaviour of underclothes represents a part of information culture; 4) changes in the pattern of maintaining underclothes show that differentiation of sex role in household tasks is decreased.

I. 서론

복식은 그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눈에 보이게 표명해주는 문화의 한 영역이다. 다른 상징들과 마찬가지로 복식은 인간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의 능동적 표현으로서, 성,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낼 뿐 아니라, 내면에 잠재해 있는 강한 욕구의 감정을 전달한다(Schwarz, 1979:28). 그러므로 복식 속에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들이 숨어 있으며, 복식에 내재해 있는 의미의 발견은 문화분석을 위한 중요한 작업의 일부이다.

어떻게 입는 것이 합리적이고 멋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옷입기 양식은 적합한 것과 멋진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기준은 문화적 규칙으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방식에 따라 옷을 입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 하는 문제는 특정 상황의 맥락 안에서 행위주체가 어떤 의식 또는 어떤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Sahlins, 1976:180). 즉 인간이 무엇을 입는가 하는 것은 그의 신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들 집단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옷입기의 양식¹⁾은 착용자의 의식과 사회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이처럼 복식이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문화적인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복식의 연구에서 복식 속에 숨겨진 차원으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찾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복은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내면의 개인 생활을 대중의 영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속옷은 신체와 겉옷 사이에서 요구되는 매개체로 인지되어 왔으며 아울러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

다. 이러한 기능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는 상반된 속성을 지닌채 속옷에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속옷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조화시키는 주요 수단이 된다(Martin & Koda, 1996:10). 즉 겉옷은 자신의 사회적 자아를 나타내며 속옷은 자신의 개인적 자아를 뜻한다(Lurie 1983:230).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속옷은 외부 사회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라기 보다 사적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표현이다. 따라서 속옷은 인간 내면의 의식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겉옷의 실루엣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속옷에는 인체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으므로 생리위생과 신체의 보온, 보호 등의 기능이 있으며 이외에 계층, 정숙성과 성적 매력의 이중상징, 미의식의 표현 기능이 있다(Cunnington, 1992:14). 그러므로 속옷의 형태와 기능을 통해서 그 사회의 미의식과 도덕의식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착용관행을 통해서 남녀의 역할과 지위, 사회체제, 관습 등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속옷의 입수와 관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물질문화와 상황과 경제구조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개인적인 생활 방식을 살필 수 있다. 속옷은 겉옷에 비해 감추어진 그 사회의 내면의 문화를 더 풍부하게 반영해 주며, 이러한 속옷의 특성은 문화의 내재적 규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제까지의 속옷에 대한 연구들은 착용감과 위생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연구(이숙향, 1985; 조영미, 1989; 인명희, 1992)와 변천사적 고찰(김주애, 1985; 정복희, 1986; 윤진아, 1995), 착용실태와 착용현황(안영숙, 1987; 김순분 & 김효은, 1991; 손희순, 1991)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 국내 속옷시장의 확대와 속옷의 패션화 경향에 따라 마케팅과 소비자 행

1) 문화적 용어로서의 양식이란 일관되고 규칙적인 또는 반복적인 행동의 어떤 면을 묘사하는 개념이다(Horn & Gurel, 1981:38). 따라서 복식양식은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행위관습 즉 옷 입기의 실제적 관행을 조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동 측면에서의 연구(유진경, 1995; 이홍, 1995; 김미정, 1996; 박은정, 1996)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속옷에 대한 문화분석적인 접근은 전무하였으며, 단지 전체 복식의 차원에서 문화변동과 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박찬부, 1992; 박길순, 1991)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옷입기의 양식 중 걸어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복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속옷 입기의 양식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속옷의 종류와 기능, 관리, 입수, 착용관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속옷문화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문화적 의미를 찾아본다. 또한 전통적인 속옷문화와 현대의 속옷문화를 비교 분석하고 그 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밝혀 봄으로써 한국 현대 복식문화를 거시적 문화체계로 전망한다. 이것은 속옷문화의 변화를 통한 한국 복식문화의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속옷 생산업체나 관련 산업에 소비자의 속옷에 대한 의복행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유용한 상품 기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속옷문화 분석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첫째, 전통사회의 속옷문화의 특징 찾기, 둘째, 현재의 관행을 중심으로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의 정해진 속옷 입기 양식을 통해 상징화된 문화적 규칙 찾기, 셋째, 속옷에 대한 인지 정도와 속옷 입기 양식 속에 숨어 있는 변화된 문화적 의미 찾기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 복식문화의 일부를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문화는 실제적인 관행 그 자체도 아니고, 사회의 인식과 습속에 대해 기술한 총합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관행을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이들 사회적 관행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조직의 분석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Hall, 1994: 523). 그러므로 문화의 분석은 사회적 관행들 속에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문화적 규칙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적 규칙은 비

슷한 의미들과 태도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속옷문화의 규칙은 그 집단성원들이 속옷에 대해 어떤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속옷을 착용하는가에 대한 관행의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속옷문화의 분석은 이와 같은 속옷의 문화적 규칙을 찾음으로써 가능해진다.

옷입기 양식 속에 존재하는 질서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전통 사회의 속옷의 종류와 형태, 착용관행 및 이유, 관리 및 입수에 대해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속옷 입기의 관행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는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직접 서술하도록 하는 비구조화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인지하고 있는 속옷의 명칭과 종류, 착용이유, 착용품목, 입수 및 세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19~28세의 남녀 대학생으로, 전공(이과, 문과, 예체능)을 층화표출방법으로 분류한 후 표집하였다. 조사는 1997년 11월 3일에서 1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남자가 136명, 여자가 165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가 만들어서 부호화 시킨 분류표에 따라 정리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인류학적 작업은 직접적으로 관찰된 민족지적 사실을 기초로 그들의 행위를 분석하고 문화를 해석하는 일이므로 이를 위해 질문지 조사에 응한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병행하였다.

III. 전통사회의 속옷문화

한국의 전통 복식의 기본 구조는 관모(冠帽), 저고리(襦), 띠(帶), 두루마기(袍), 바지(袴), 치마(裳, 裙), 버선(襪), 신(靴, 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복식의 세부적인 변화만 있었을 뿐 우리 민족 고유의 복식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다. 상고시대의 경우, 속옷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제도와 형태는 알려

지지 않고 있다. 고구려 벽화의 인물상에는 긴저고리 밑으로 흰 내의(內衣)가 엿보이고, 신라 덕흥왕시대의 복식제도에 따르면 남자는 내의(內衣)와 고(袴)를 입고 그 위에 표의(表衣)를 입었으며 여자는 내의와 고의 기본복식에 외래적인 의복으로 표상(表裳)을 걸치고 그 위에 표의를 입는다고 하였으나(김동욱, 1973), 내의(內衣)는 표의(表衣)에 대응하는 것으로 두루마기(袍)에 대한 저고리(中單)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김동욱, 1982). 고려시대의 여자 복식에서 걸치마의 폭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치마를 한 말기에 달아서 입은 속치마로 선군(旋裙)이라는 것을 입었으며 후세의 여자의 고쟁이와 같은 것을 목욕시 입었다고 하나 그 외 속옷으로서의 바지의 착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유희경, 1980). 조선시대에는 차원 높은 속옷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옷입기 방식은 우수한 속옷문화를 발달시켰다. 이것은 현대까지도 일부가 그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한 고증이 가능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속옷을 전통사회의 속옷으로 간주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속옷의 종류와 형태

우리 나라 전통 복식의 속옷 종류는 위에 착용하는 상의와 아래에 착용하는 하의로 나눌 수 있다. 남자들은 속옷으로 저고리 밑에는 소매가 짧은 속적삼을 입거나 땀이 저고리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삼베나 대로 성글게 만든 등거리를 입었다. 바지 밑에는 목면이나 삼베로 지은 속고의나 무릎길이의 잠뱅이를 받침 옷으로 입었다(조효순, 1989; 박경자, 1982).

여자의 속옷은 상의로는 속저고리, 속적삼, 가리개용 허리띠가 있고, 하의에는 너른바지, 단속곳, 속바지, 속속곳, 다리속곳의 바지류와 무지기 치마, 대습치마의 치마류가 있다(유희경, 1996). 여자의 경우 삼복 더위를 제외하고는 저고리 밑에 속저고리를 껴입는 것이 도리였으며, 속저고리는 속적삼 위에 입었는데 속적삼보다는 넉넉하게 하고 걸저고리보다는 약간 작게 하였다. 고풍은 좁고 잘막하게 달았으나 고풍을 매어 늘어뜨리지 않고 매어서 앞깃 속으로 쥘러 넣어 저고리

밑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유희경, 1982:213). 속적삼은 홀으로 된 것으로 그 형태는 저고리와 같으나 치수는 저고리보다 약간 작았으며 동정과 고풍이 없고 일반적으로 땀은 단추를 달아 입었다. 아무리 삼복 더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속적삼을 받쳐 입었는데 겨울에는 이 속적삼 위에 겹으로 된 속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걸저고리를 입었다. 혼인 때에는 아무리 엄동설한 일지라도 모시분홍 속적삼을 입었다(유희경, 1996:344). 가리개용 허리띠는 조선 말기에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말기를 가려주지 못함에 따라 치마와 저고리 사이의 겨드랑이 밑을 가려 주기 위한 한자 가랑되는 넓은 띠이다. 여름에는 홀으로, 겨울에는 얇은 솜을 누벼서 사용하였으며 줄잇말이라 하여 툇툇한 베로 만들어 여자가 가슴이 부풀고 젖망울이 아프기 시작할 때 이것을 입혀 유방이 커지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조효순, 1989:218).

조선 시대의 여자 바지는 완전히 치마 안에 입는 속옷으로 변모되었고 많이 껴입어 치마를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대체로 바지통이 넓고 앞뒤가 트인 것과 막힌 것이 있었으며 어깨 끈이 달린 것도 있었는데 언제나 끈은 전후에 한 가닥으로 봉제되어 있었다(고북남, 1991:151). 너른 바지는 상류계급의 여자들이 정장할 때 단속곳 위에 입어서 하체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주로 비단을 가지고 4폭으로 만든 가랑이가 70cm나 되는 넓은 것으로 앞은 막히고 뒤가 터진 겹바지이다(유희경, 1982:214). 단속곳은 넓은 홀옷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걸속곳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며 형태는 가랑이가 넓고 밑이 막혀 있으며 길이는 바지보다 길고 치마보다는 약간 짧았다. 단속곳은 당시의 특이한 착장법으로 인하여 항상 치마 밖으로 내보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치마만큼 고급 옷감을 사용하였다(유희경, 1980:496). 그러나 가난한 서민들은 고급 옷감을 쓸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눈에 띄는 아래 부분에만 고급 옷감을 대기도 하였다. 서민들 사이에 꼬장주, 꼬장바지, 고장바지라고 불리었던 속바지는 단속곳 밑 속속곳 위에 입었는데, 밑이 따로 떨어져 있고 말기가 있었으며 허리끈이 달려 있었다. 형태는 위의 통이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통이 좁아져 자연히 아랫부분이 여며지도록

되어 있었으며, 크기는 입었을 때 속속곳보다는 크다(조효순, 1989:231,232). 속속곳은 직접 살에 닿는 속옷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이나 명주를 주로 사용하였고,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배, 굵은 모시, 팥당포, 안동포 등을 사용하였다(유희경, 1980:498). 옷의 형태는 다리통이 넓고 밑은 막혀 있으며, 허리부분에 끈이 달려 있어 매어주게 되어 있었다. 가장 밑에 입는 하의 속옷인 다리속곳은 속속곳이 크기 때문에 자주 빨 수 없어서 자주 빨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다. 일반적으로는 계절에 관계없이 흰 목면으로 만들었고 그 형태는 홀로 된 긴 천에 허리띠를 달아서 차게 되어 있었다(조효순, 1989:231).

무지기 치마와 대습치마는 상류계급과 왕족이 사용하던 속치마의 일종으로 정장을 할 때 치마를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치마 밑에 입었던 속옷이다(유희경, 1982:213). 무지기 치마는 허리에서 무릎까지를, 대습치마는 치마의 아랫단을 부풀려 주어서 가슴에서 부터 땅에 닿을 정도의 걸치마가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만들어준다.

2. 속옷의 입수와 관리

배를 짜고 옷을 짓는 일은 조선시대 아낙네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가사노동 중의 하나였으며, 가족성원들의 의복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노동력에 의해 제작, 공급되었다. 속옷 역시 걸옷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여성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상류계급의 경우, 침모의 길잡과 바느질에 의존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흰옷을 즐겨입은 데다 청결이 여인의 으뜸되는 풍속에 의로 존중되었던 만큼 세탁은 조선의 여인들에게 바느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집안일 중의 하나였다. 속옷을 겹겹이 끼입는 풍속과 옷을 통째로 빨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뜯어 빨았으므로 세탁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속옷은 주로 면직물을 사용했으므로 빨랫감을 젖물에 삶아 두드리는 삶는 빨래를 하였다. 속옷은 걸옷과 구분해서 세탁하였고 그 외에 뒷옷과 아래옷, 남자옷과 여자옷, 어른옷과 아이옷을 구분해서 빨는 것은 세탁의 예의였고, 여자의 속바지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말리도록 하였다(조효순, 1989). 또한 전통 사회에서 푸새는 의복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모사나 삼배, 명주로 속옷을 만들 경우 가실가실한 촉감을 주어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푸새로 속옷의 뒷처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처럼 옷감을 짜고 옷을 짓는 일, 그리고 세탁을 하는 일은 여성들에게 부여된 힘든 책무였다.

3. 속옷의 착용관행과 착용이유

전통 복식에 있어서 속옷은 걸옷의 착용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겹겹이 끼입는 착용관행은 속옷의 표현미를 통하여 전통 복식의 미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입어왔던 착용방법은 여자 속옷의 경우 저고리는 삼복 더위라 할지라도 걸저고리 한 겹만 입는 법이 없었고 그 밑에 속적삼을 반드시 받쳐 입었으며, 더 엄격하게는 속적삼 위에 속저고리, 그 위에다 걸저고리 해서 세 벌을 차곡차곡 입었다. 치마 밑에는 더 여럿을 챙겨 입었는데 치마 바로 밑에는 단속곳을 입고 그 밑에 속바지를 입고 그 밑에 속속곳을 입고 맨 안에는 다리속곳을 입었다. 상류계급의 여자들이 정장을 할 때에는 치마를 풍성히 하려고 단속곳 위에 너른바지를 하나 더 입기도 했다. 거기에다 무지기 속치마를 더 입어 치마폭을 더욱더 부풀리기도 했고 궁중에서는 무지기 속치마 위에 다시 대습 속치마를 더 입기도 했다. 또 저고리 길이가 아주 짧았던 시절에는 옷을 입기 전에 맨살에 겨드랑 밑으로 바락 치켜서 가슴을 납작하게 조르는 허리띠를 동여매었다(뿌리깊은 나무, 1990).

그러므로 속옷을 제대로 차려 입으면 치마를 입은 모습은 마치 종을 얹어 놓은 듯한 실루엣을 표출하였고 옷저고리의 밀착된 선 때문에 속치마가 주는 외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하체를 지극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향아리를 방불케 하는 둔부의 앞뒤 볼륨이 보다 완벽하게 고정되려면 착용법만으로는 부족했고 치마 밑에 속옷을 얼마나 충실하게 입었느냐와 관련이 되었다. 즉 겹겹이 입은 속옷은 걸치마의 페티코트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이유와 함께 치마 꼬리를 치켜 올려 앞으로 끌어당겨서 속옷이 보이게 되는 착

장방식 때문에 조선조의 여성들은 겉옷 만큼이나 속옷에 많은 신경을 썼고, 이는 차원 높은 내의문화(內衣文化)를 형성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조효순, 1989).

이처럼 속옷이 미적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속옷에 대해 사치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한 때는 이러한 사치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복식의 개량으로 속옷의 간소화가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여성 속옷의 사치가 서민 대중의 실생활에 까지 미쳤다고는 할 수 없고, 상류 부유층에서부터 사교계에 출입하는 기생들에게 더 큰 유행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여성의 속옷은 빈부의 차이나 계층, 또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 갖추어 입지 않아도 되는 평상사예나, 제사사에는 가지 수를 줄여 입는 경우도 있었으며(조효순, 1980), 여름에는 한두 가지를 생략하여 입기도 하였다.

IV. 현대사회의 속옷문화

개화기 이래 우리나라에 보급된 서구 문화의 영향은 전통문화의 모습을 변화시켰으며 복식문화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겉옷뿐 아니라 겉옷의 형태와 특성에 종속적인 속옷의 형태, 기능, 착용관행 및 인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1. 속옷의 종류 및 인지도

개화기 시대를 지나서 양장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의복이 차츰 개량화되고 양복을 착용함에 따라 속옷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여성 속옷은 전통사회가 요구하던 기능적인 면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점점이 입던 많은 속옷들이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하나 둘 사라져 갔다. 개화기 여성들은 긴 저고리, 짧은 치마나 통치마를 착용하고 그 안에 새로 들여 온 속옷들을 착용하기도 하여 개량된 의복 안에는 개량된 속옷을 입

는 경향이 나타났다(유수경, 1990). 그 이후 서구의 생활양식이 다양한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전 연령층에 걸쳐 양장이 보편화 됨으로써 양장에 맞는 다양한 속옷이 등장하게 되었다.

서양복식을 기초로 형성된 현대 사회의 속옷은 착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언더웨어(underwear), 파운데이션(foundation), 란제리(lingerie)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언더웨어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과 땀 등의 분비물을 받아 내어 겉옷의 더러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이며, 슈미즈, 셔츠, 브리프스, 드로워즈, 팬티 등이 이에 속한다. 파운데이션은 체형보정을 위한 목적으로 복장을 정돈하는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하며 브래지어, 거들, 올인원, 바디수츠, 코르셋, 웨이스트니퍼, 가터벨트 등이 있고, 란제리는 속옷 중에서 가장 위에 입는 것으로 바깥 쪽에 입는 옷과의 마찰을 좋게 하고 보다 나은 실루엣을 내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란제리 종류에는 슬립, 캐미솔, 패티코트, 네글리제 등이 있다. 파자마나 나이트 가운, 베이딩 가운은 홈웨어 란제리로 분류된다(복식사전, 1992).

이상의 속옷들을 현대 사회의 속옷종류로 간주하고 인지도²⁾를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위에 열거한 속옷의 명칭을 제시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속옷의 명칭에 표시하고 그 각각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한 결과, 질문지에 제시한 모든 속옷의 명칭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브래지어와 팬티³⁾는 조사자 전원이 알고 있는 품목이었으며, 거들과 런닝셔츠도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것은 이들 네 종류의 속옷이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일상화된 것임을 의미한다. 의외로 남학생이 여성용 속옷의 명칭을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원티의 경우 여학생은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반면 남학생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24품목 중에서 남학생은 12품목을, 여학생은 16품목을 50% 이상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 2) 속옷명칭뿐만 아니라 형태, 기능, 착용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을 그 명칭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3) 팬티는 실제로 문헌에는 없는 용어로 팬티즈나 브리프스를 말한다. 한명숙(1997)의 연구에 의하면 실생활에서 팬티즈와 브리프스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속에 입는 하의 속옷을 일반적으로 구분없이 팬티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의미한다.

<표 1> 속옷에 대한 인지도

명칭	성별			명칭	성별		
	남 (n= 136)	여 (n= 165)	전체(%) (n= 301)		남 (n= 136)	여 (n= 165)	전체(%) (n= 301)
브래지어	136	165	301(100.0)	화운데이션	34	99	134(44.5)
팬티	136	165	301(100.0)	패티코트	8	120	128(42.5)
거들	131	165	296(98.3)	슈미즈	43	80	123(40.9)
런닝 셔츠	134	162	296(98.3)	캐미솔	30	90	120(40.0)
내복	132	161	293(97.3)	가터벨트	28	35	63(20.9)
파자마	130	158	288(95.7)	울인원	7	56	63(20.9)
목욕가운	124	158	282(93.7)	네글리제	15	23	38(12.6)
코르셋	121	158	279(92.7)	콤비네이션	18	15	33(11.0)
나이트가운	113	153	266(88.4)	라운드웨어	9	8	17(5.6)
란제리	129	134	263(87.4)	드로워즈	2	9	11(3.7)
슬립	99	148	247(82.1)	웨이스트니퍼	1	10	11(3.7)
언더웨어	98	130	228(75.7)	원팀	5	-	5(1.7)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기반으로써 우선되는 자
필로는 착용목적, 착용자, 착용공간, 착용시간,
형태,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속옷의 입수와 관리

속옷의 입수형태는 구매와 선물의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었는데 전체의 41.9%가 어머니를 통하
서 구입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본
인이 구입하는 응답자는 24.8%를, 본인이 구입
하는 응답자는 20.6%를 차지한다(표 2). 남학생

도 적지 않은 수가 본인 스스로 구입한다고 하였
고, 전적으로 선물에 의존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어머니 외의 구입자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누나
가, 여학생의 경우는 여형제에 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속옷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여성
들이며, 남학생들의 경우, 많은 수가 속옷 가게에
는 창피해서 또는 어색해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구입한다는 응답자
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사회에서
속옷의 제작과 관리가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표 2> 속옷의 입수형태

입수형태	입수자	남 (%)	여 (%)	전 체 (%)
구 매	어머니	67 (49.3)	59 (35.8)	126 (41.9)
	본 인	23 (16.9)	34 (20.6)	57 (18.9)
	어머니 및 본인	16 (11.8)	41 (24.8)	57 (18.9)
	그외의 식구	2 (1.5)	3 (1.8)	5 (1.7)
구매/선물	어머니와 본인/친구	25 (18.4)	28 (17.0)	53 (17.6)
선 물	친구, 기타 가족	3 (2.2)	-	3 (1.0)
합 계		136 (100.0)	165 (100.0)	301 (100.0)

이루어졌던 관행의 영향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속옷을 공급하는 일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으나 남성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속옷은 선물을 통해서 입수되기도 하는데 응답자 중 18.6%가 속옷을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가족보다 친구들에 의한 선물이 대부분이었고 이성의 친구가 주로 선물한다고 밝혔다. 속옷을 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품목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이성친구 사이에 자연스럽게 속옷이 선물로 주고 받아진다는 것은 젊은이들의 이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속옷을 구입하는 장소로는 대리점이나 전문점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속옷의 유통

망이 기존의 시장 중심에서 백화점, 전문매장 중심체제로 바뀌어 간다는 연구(좋은 사람들, 1995) 결과를 뒷받침한다.

속옷에 대한 정보는 잡지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을 <표 4>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이 T.V, 가족과 친구의 순이 있는데 이것은 정미실(1997)이 인적 정보원의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정미실의 연구가 30대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인데 비해 본 연구는 젊은 세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연구 결과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젊은 세대에 있어서 속옷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삶의 영역에 숨겨져 있어야 하는 문화요소가 아니라 걸으로 드러내서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요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잡지나 T.V

<표 3> 속옷 구입 장소

구입 장소	남 (%)	여 (%)	전 체 (%)
대리점 또는 전문점	70 (51.5)	108 (65.5)	178 (59.1)
백화점	23 (16.9)	36 (21.8)	59 (19.6)
재래시장	11 (8.1)	6 (3.6)	17 (5.6)
할인매장	4 (2.9)	4 (2.4)	8 (2.7)
모르겠음	28 (20.6)	11 (6.7)	39 (13.0)
합 계	136 (100.0)	165 (100.0)	301 (100.0)

<표 4> 속옷에 대한 정보원

정보원	남 (n=136)	여 (n=165)	전 체 (n=301)
잡 지	102 (75)	110 (66.7)	212 (70.4)
T.V	107 (78.7)	102 (61.8)	209 (69.4)
가족, 친구	33 (24.3)	94 (57.0)	127 (42.2)
신 문	39 (28.7)	14 (8.5)	53 (17.6)
매장, 상점외 진열대	6 (4.4)	17 (10.3)	23 (7.6)
광고게시판	6 (4.4)	3 (1.8)	9 (3.0)
PC 통신	4 (2.9)	-	4 (1.3)
영 화	4 (2.9)	-	4 (1.3)
정보를 얻지 않음	4 (2.9)	1 (0.6)	5 (1.7)

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같은 연령대인 여학생과도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잡지나 T.V에 나오는 속옷광고 모델의 육감적인 모습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성속옷에 대해 의외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비교적 다양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보화의 시대적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학생의 생활 패턴을 보여 준다.

속옷에 대한 관리는 세탁을 누가하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탁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5>에 의하면, 세탁은 주부인 어머니에 의해서 전체의 52.8%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학생은 어머니와 유사한 비율로 본인이 하고 있었다. 남학생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에 의존적이며, 본인이 하는 경우는 반수 이상이 지방 학생으로 현재 자취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도 속옷은 본인이 세탁한다는 응답자와 본인과 어머니가 함께 한다는 응답자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의 남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의식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어머니 외에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도 속옷의 세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의 가족으로 남학생은 같이 동거하는 여자 가족성원(누나, 할머니, 형수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속옷의 세탁과 구입자 간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전적으로 어머니가 속옷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탁 또한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속옷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속옷을 본인이 세탁하고 있었다.

속옷의 세탁은 대부분 세탁기에 의한 기계세탁보다 손빨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머니나 여학생이 세탁할 경우에는 삶는 빨래의 방법을 병행하고 있어 전통적인 세탁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젊은이들 스스로 속옷을 구입할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이 화려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며, 삶는 빨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속옷이 갖는 청결위생의 기능보다 성적매력의 표현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속옷문화의 변화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3. 속옷의 착용관행과 착용이유

실제의 속옷 착용상태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옷의 품목을 통해서 착용관행을 살펴볼 수 있는데, <표 6>과 <표 7>에 의하면 남녀학생 모두 조사시기가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최

<표 6> 남자 대학생의 속옷착용상태

착용상태	인원수(%)
삼각팬티	53 (39.0)
사각팬티	26 (19.1)
런닝셔츠 + 삼각팬티	40 (29.4)
런닝셔츠 + 사각팬티	17 (12.5)
합 계	136 (100.0)

<표 5> 속옷의 세탁

세탁자	남 (%)	여 (%)	전체 (%)
어머니	81 (59.6)	78 (47.3)	159 (52.8)
본인	23 (16.9)	61 (37.0)	84 (27.9)
본인과 어머니	18 (13.2)	24 (14.5)	42 (14.0)
부모님	5 (3.7)	1 (0.6)	6 (2.0)
그외의 가족	9 (6.6)	1 (0.6)	10 (3.3)
합 계	136 (100.0)	165 (100.0)	301 (100.0)

<표 7> 여자 대학생의 속옷착용상태

착용 상태	인원수(%)
팬티 + 브래지어	90 (54.5)
팬티 + 브래지어 + 런닝셔츠(or 캐미솔)	51 (30.9)
팬티 + 브래지어 + 거들	7 (4.2)
팬티 + 브래지어 + 거들 + 런닝셔츠	14 (8.5)
팬티 + 브래지어 + 속치마	3 (1.8)
합 계	165 (100.0)

소한의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58.1%)이 팬티만을 착용하였고 그외의 응답자도 런닝셔츠 만을 하나 더 착용했을 뿐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거기에 상의로 런닝셔츠나 캐미솔 또는 하의로 거들이나 속치마를 더 챙겨 입기도 하였다. 하의 속옷의 착용은 상의 속옷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의 속옷대신에 스타킹의 착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속치마의 착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바지의 착용을 선호하는 최근의 유행 경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⁴⁾.

남학생의 경우 굳이 삼각팬티와 사각팬티⁵⁾를 구별하여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삼각팬티와 사각팬티는 분명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청바지를 입을 때는 삼각팬티를, 보다 헐렁한 정장용 바지를 착용할 경우에는 사각팬티를 상황에 따라 구별하여 착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어떤 응답자는 보다 타이트하게 밀착되므로 착용감이 좋고, 젊고 선정적으로 보이므로 삼각팬티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통풍이 잘 되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사각팬티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런닝셔츠 대신에 편색의 라운드넥라인의 T-셔츠를 착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속

옷으로 런닝셔츠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땀흡수와 보온의 기능을 하면서 그 위에 자켓이나 스웨터를 직접 걸쳐 입음으로써 보다 젊고 감각적인 멋을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속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으며, 속옷은 그 기능만 충족될 수 있다면 어떤 다른 형태나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과 원하는 걸옷의 스타일과 추구하는 미의식에 따라서 생략과 첨가가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반드시 착용해야 할 속옷의 품목으로서 남학생은 팬티를, 여학생은 팬티와 브래지어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5.6%) 반드시 착용해야 할 속옷은 없으며, 속옷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도 개인의 기호일 수 있다는 대단히 개방적인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표생략).

속옷을 착용하는 주된 이유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표 8>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속옷은 안 입으면 불편하고 허전하여 습관적으로, 사회규범상 기본적으로 입어야 하므로, 신체보호 및 보온을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청결과 위생상의 목적으로, 몸매보정을 위해서 속옷을 필요로 한다. 남녀 모두에게 중요시되는 착용이유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입어야 하기 때문과 신체보호와 보온을 위해서, 청결과 위생상의 필요에 의해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몸매보정을 위한 것이나 옷맵시를 위한 착용이유는 남성 속옷에서는 없는 화운데이션 품목과 란제리 품목의 착용목적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속옷을 입었을 때 밀착되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남학생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구조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착용목적은 기능적, 심미적인 이유였는데 여성 속옷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내용은 기능성과 심미성으로 여성 속옷은 체형보정이라는 목적이 우선되는 품목이라는 김미영, 한명숙(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4) 김순분과 김효은(1991: 104)은 모든 형태의 란제리류는 착용율이 낮았으며 착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별 생각없이 안 입는다'와 '귀찮음', '바지착용' 등이었다고 한다.

5) 삼각팬티는 브리프스(briefs)를, 사각팬티는 트렁크스(trunks)를 말한다.

<표 8> 속옷 착용 이유

착용 이유	남(n=136)	여(n=165)	전체(n=301)
땀 흡수 등의 청결과 위생상의 목적으로	18 (13.2)	77 (46.7)	95 (31.6)
안 입으면 불편하고 러전하여 습관적으로	53 (39.0)	35 (21.2)	87 (28.9)
몸매 보정을 위해서	-	67 (40.6)	67 (22.3)
신체 보호 및 보온을 위해서	23 (16.9)	27 (16.4)	50 (16.6)
사회규범상 기본적으로 입어야 하므로	25 (18.4)	19 (11.5)	44 (14.6)
겉옷이 직접 몸에 닿는 것이 싫어서	10 (7.4)	7 (4.2)	17 (5.6)
밀착되어 편안함이 느껴짐	16 (11.8)	-	16 (5.3)
겉옷의 맴시를 위해서	-	10 (6.1)	10 (3.3)
수치관념의 이유로	-	5 (3.0)	5 (1.7)
성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1 (0.7)	1 (0.6)	2 (0.7)
무응답	4 (2.9)	-	4 (1.3)

다. 남학생의 경우는 습관상, 건강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인 이유에서 속옷의 착용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속옷을 통해서 연상되는 이미지의 목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의 문화적 양상을 엿볼 수 있었다. 연상 이미지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성적 매력'과 '섹시함'으로 속옷은 성(性)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졌으며, 이에 비해 여학생은 '순결'과 '청결'이 우선되는 연상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속옷을 통해서 '속옷광고와 그 광고의 모델'이 연상된다고 하는 응답은 속옷의 정보원으로 주로 잡지와 T.V를 이용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로 정보사회에서의 대중매체와 광고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속옷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로 '패션'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속옷의 고급화, 패션화 경향을 대변해 주는 현상이다. 여학생의 경우 많은 숫자가 '신체의 보정기능'을 연상하는 것은 속옷의 착용 이유로 몸매보정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 여체, 비밀, 신비, 아름다움, 편안함, 따뜻함, 썩스러움, 구속, 위생, 호기심, 신촌초야, 유혹, 사치, 생식기관, 영화의 장면 등이 연상되는 이미지로 나타났는데(표 생략), 이것은 속옷이 여전히 은밀한 상호관계와 신체의 은밀한

부분 그리고 성행위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V. 속옷문화의 변화

1. 전통사회의 속옷문화의 특징

전통사회의 속옷은 남녀 모두 겉옷과 같은 평면구성의 여유있는 형태의 것을 겹겹이 겹쳐 입는 증착의(重着衣)에 의한 착용법을 사용하여 신체의 외형선을 감추고 있다. 특히 상류사회 여성의 경우 규방에 유폐되어 외부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으며 타인에게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 놓아서는 안되는 유교적인 의식구조로 인하여 가능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철저히 은폐해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옷을 입음으로써 신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반면, 치마꼬리를 치켜 올려 앞으로 끌어당김으로써 겹겹이 입은 하의 속옷을 드러나게 하는 독특한 착용문화가 있었으니, 이것은 여성의 하체가 상징하는 성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즉 신체를 가리면서 옷속에 숨겨져 있는 육체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착장방식은 성적인 충동을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성적인 연상이 가능한 신체의 일부가 과장되어 가려져 있는 경우, 오히려

관심을 끌게 된다(Lurie, 1983)는 점에서 이것은 에로티시즘의 표출이라 하겠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적 표출은 혼인 때에 추운 겨울일지라도 모시 분홍 속적삼을 받쳐 입었다고 하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노골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닌 은폐를 통해 표현되는 은근한 에로티시즘 성향이 전통사회의 속옷문화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사회의 속옷은 신체를 감추고 성적표현을 극도로 억압하는 한편, 성적매력을 은근히 표현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전통 속옷의 특징으로 여성의 하의 속옷이 발달한 것을 들 수 있다. 한복의 구조적 형태로 인해 하후상박(下厚上薄)일 수 밖에 없으나, 상체의 볼륨을 축소시키고 둔부의 앞뒤 볼륨을 확대시켜 종모양의 실루엣을 만든 것은 상징적 관념에 의한 생산력의 확대로 여성의 매력출산력에 결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재생산을 위한 여성의 생산력은 분명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여성의 지위⁶⁾를 확고히 하는 도구였기에 생산력의 상징으로서의 둔부의 확대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남성의 속옷에 비해 여성의 속옷이 훨씬 다양하며, 상의에 비해 하의의 속옷이 더 발달한 것은 혈통의 원리를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의 근간으로 인식하던 조선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역할의 필요성이 더 강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인 속옷은 착용자의 계층과 경제력을 상징화하는 신분상징의 역할을 하여 속옷에 사용된 직물, 착용한 속옷의 품목과 가지수, 세탁상태에 따라서 계층별로 차별화 되었다. 즉 서민들에게 있어서 겹옷(노동복)에 해당하는 바지가 상류층에서는 분명한 속옷으로 착용되었으며(이규태, 1994:231), 너른바지나 무지기 치마는 생활에서 정장을 필요로 하는 상류계층에서만 사용되었고, 대슬치마는 왕족만이 착용하던 것으로 입을 수 있는 속옷의 품목이 제한되었다. 속옷에 사용된 직물이나 가지수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상류층 여성의 속옷의 사치풍조는 속옷이 이러한 신분상징의 역할에서, 한몫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2. 현대사회의 속옷문화의 특징

현대사회의 속옷은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각 품목마다 확실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즉 생리위생과 보호, 체형보정, 외관의 맵시를 돕는 등 각각의 기능을 위해 그 품목이 다양하다. 그러나 개인이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속옷은 대단히 간소화 되어 최소한의 속옷을 입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체형 드러내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난 현상으로 현대의 속옷의 형태와 착용이유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화운데이션을 통한 체형교정과 확대의 목적뿐만 아니라 남성의 삼각팬티의 선호를 통해서도 체형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선호하는 의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속옷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체와 밀착되어 입혀지는 특성으로 인해 이제까지 극히 개인적인 품목으로 간주되어 사적 영역에 머물어 있던 속옷이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품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남학생은 티셔츠를 런닝셔츠 대신에 착용하여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속옷이 겹옷이 될 수 있고 겹옷이 속옷이 될 수 있다는 보다 개방적인 인식의 표현인 것이다⁷⁾.

현대사회에서의 속옷의 관리 즉 구입과 세탁은 보다 독립적이다. 과거 속옷의 구입과 세탁은 그 가정의 주부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 여학생은 물론이며, 남학생의 경우에서조차도 그 역할이 일부 본인에게로 넘겨져 왔음을 볼 수 있다. 上野千鶴子(1991)는 속옷의 구입과 관리는 속옷의 관할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가정의 속옷 구입과 세탁을 주도해 왔

- 6) 즉의혼을 하는 단계출개 사회에서의 여성은 대(代)를 이을 자식의 출산을 통해서 그 혈통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출산력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된다(Leach, 1976).
- 7) 속옷의 이미지나 형태 등의 요소가 겹옷 디자인의 모티브로 등장하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이나 란제리룩의 유행은 속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던 주부에게 속옷에 대한 관찰권이 있고 그것은 그 가족의 성기관리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속옷의 구입과 세탁이 자녀들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sexuality)의 측면에서 어머니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독립됨을 의미하는가? 또한 속옷의 구입과 세탁에 있어서 덜 의존적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먼저 성적 독립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경과 동시에 자기 속옷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속옷은 극히 개인적이고 신체의 은밀한 부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므로 속옷의 관리와 성(sexuality)의 관리는 전혀 무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옷에 대한 구매행동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정보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속옷의 구매에서 다양한 품목과 종류를 소유하고 있는 속옷 전문점 선호함으로써, 상품의 속성상 저관여 상품으로 분류되는 속옷에서조차도 유통체계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속옷의 정보원으로 다양한 대중 정보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현 정보사회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다.

VI. 결론: 속옷의 문화적 의미 변화

복식은 착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퍼포먼스 아트로서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 표현수단이 되고 있다. 복식착용의 행위 속에는 사람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착용자의 독자성이 존재하며, 그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와 규칙이 숨겨져 있다(橫川公子 외, 1998). 따라서 그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복식의 문화적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며 걸옷과 함께 속옷의 문화적 의미 또한 변화된다. 전통사회의 속옷문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속옷문화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의 양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옷의 착용규칙의 변화는 속옷의 기능 변화를 의미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성복식에 대한 전통사회의 미적 지향이 상체를 축소하고 하체를 확대하는 것이었던 반면 현대사회의 미적 지향은

상체를 확대하고 하체를 조임으로써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여성속옷이 영덩이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비해 현대 여성이 착용하는 브래지어는 체형을 교정하는 동시에 가슴을 확대하고 볼륨업(volume-up)하여 풍만하고 탄력있는 가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이 유행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줄잇말을 이용한 것에 비해 현대사회의 여성들이 하반신에 착용하는 거들은 하반신을 압박하고 축소시켜 날씬한 몸매로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슴의 확대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의 강조인 것이며 둔부의 축소는 출산력의 축소를 의미한다. 여성의 가슴이 풍만한 것은 자녀의 양육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신체부위 중에서 가슴을 강조하는 것은 성적인 매력을 추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Morris, 1995; Fisher, 1994). 즉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출산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반면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성적 매력으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여성의 인구 재생산의 가치는 억제되고 성적 파트너로서의 매력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성매력의 포인트가 변화된 것은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암시하기도 한다.

둘째, 전통사회의 체형 감추기에서 현대사회의 체형 드러내기로 속옷의 기능이 변화되었다. 속옷이 실루엣 형성에 기여한 점은 비록 미의 추구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통사회와 현대사회, 모두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속옷의 기능이 신체의 외형선을 드러내기에 일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시대의 걸옷의 형태와 패션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불만족한 체형을 감추기보다는 속옷을 통해서 현대의 미의 기준에 맞는 체형으로 교정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속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성(性)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속옷이 타인을 배제하고 가족관계와 같은 극히 친밀한 관계에서만 주고 받아지던 사적영역에 속했던 문화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선물의 품목으로 이용되는 것은 기존의 속옷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선물교환의 행위는 선

물을 주는 자가 일정한 속성을 지닌 물건을 선택하여 선물 수행자의 생활 속에 그 선물의 상징적인 속성을 은근히 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McCraken, 1996). 즉 속옷을 선물하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친밀감의 강화라는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가족과 같은 친밀도를 강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성원을 위해서 제작되고 관리되던 속옷이 현대에는 친구나 외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품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속옷이 갖는 외부세계에 대한 배타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며, 한편 가족에게만 적용되던 사적 영역의 범위가 친구집단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속옷의 연상 이미지가 성(性)과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속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속옷이 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으로서의 성(性)이 보다 일상적이고 캐주얼한 것으로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속옷의 관리에 대한 변화는 가사노동에 대한 남녀역할의 차이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세탁에 대한 공동분담은 가사노동에 대한 개방적인 의식태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세탁은 여성의 중요한 가사노동의 하나로 청결은 여성의 미덕이자 의무였다. 그러나 청결의 항목이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성에게로 전이 된 것은 역할의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옷의 관리권(입수와 세탁)을 성(性)의 관리권으로 생각할 때 남성 속옷의 관리권이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의 성에 대한 태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가 가부장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나 속옷은 그 가정의 주부에 의해서 제작, 관리되었으므로 가족의 전체 구성원의 성의 관리권은 주부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속옷의 관리권이 주부의 권한에서 점차 벗어나므로써 가족의 성의 관리권도 함께 그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속옷입기의 관행을 통해서 한국문화의 특성과 그 변화들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속옷에 숨겨진 차원으로로서의 문화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사의 범위와 방법론적인 면에 제한이 있다. 본 연구는 속옷의 착용관행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속옷의 구매행동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고 속옷은 아직도 사적인 영역이므로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대상이 남녀 대학생에 국한되었으므로 한국의 속옷문화를 전부 설명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더 많은 요인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복남, 韓國傳統服飾史研究, 일조각, 1991.
 김동욱,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 문화사, 1973.
 김동욱, 한국복식의 기본구조, 韓國의 服飾,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 9-21.
 김미경, 자기-감시, 상황, 광고소구유형이 속옷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미영, 한명숙, 여성 속옷광고에 나타난 문자의 상의 내용분석, 복식문화연구, 제5권 제2호, 1997, pp. 181-193.
 김순분, 김효은, 여성의 속옷착용에 관한 조사연구(1),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6집, 1991, pp. 91-105.
 김주애, 여자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라사라 교육개발원,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2.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박은정, 속옷구입시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추구해택과 구매행동,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찬부, 한국현대 복식 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박경자, 일제시대의 복식, 韓國의 服飾,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 433-455.
 뿌리깊은 나무, 여름한복, 대원사, 1990.
 손희순,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

- 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2집, 1991, pp. 45-98.
- 안영숙, 화운데이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유수경, 韓國女性洋裝變遷史, 일지사, 1990.
- 유진경, 내의류 통신판매에 대한 소비자 태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 유희경, 저고리와 친의류, 韓國의 服飾,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pp. 207-217.
- 유희경, 韓國服飾文化史, 교문사, 1996.
- 윤진아, 근세시대의 서양여자 속옷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한국인의 옷 이야기, 기린원, 1994.
- 이숙향, 거들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이 흥, 여성 속옷의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안명희, Double Wearing법에 따른 無塵속옷 착용체계와 착용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미실, 의복 상표충성도의 차원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2, No. 2, 1998, pp. 267-278.
- 정복희, 서양복 내의의 변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조영미, 내의의 소재별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조효순,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과 개량논의, 복식, 4호, 1980, pp. 1-12.
- 조효순, 韓國民俗風俗史研究, 일지사, 1989.
- 조효순, 한국인의 옷, 밀알, 1995.
- 좋은 사람들,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부설 산학협동 사례연구센터, pp. 1-19.
- 한명숙, 복식명칭의 화용론적 연구(Ⅱ), 복식문화연구, 5권 3호, 1997, pp. 57-76.
- 上野千鶴子, 스커트밀의 극장, 장미회역, 논장, 1991.
- Cunnington, C.W., &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1992.
- Fisher, H.E., 사랑의 해부학 - 사랑과 성의 인류학적 보고서-, 하서, 1994.
- Hall, S.,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In N.B. Dirks, G. Eley, & S.B. Ortner (Eds.), Cultural, Power, History: A reader in contemporary soci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4.
- Horn, M.J., &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Leach, E., Culture &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Lurie, A., 衣服의 言語, 유태순역, 경춘사, 1983.
- Martin, R., & Koda A., 인프라 의상, 이선재역, 경춘사, 1996.
- McCraken, G., 문화와 소비, 이상률역, 문예출판사, 1996.
- Morris, D., 털 없는 원숭이, 정신세계사, 1995.
- Sahlins, M., Culture and Practical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Schwarz, R. A., Uncovering the Secret Vice: Toward an Anthropology of Clothing and Adornment, In J. A. Cordwell & R. A. Schwarz(Eds.), The Fabrics of Culture, The Hague: Mouton, 1979.